

(03)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

한국이 주장하는 고문헌에 등장하는 독도라는 섬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 다른 섬이거나 구름 등 다른 자연물을 오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19세기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독도와 같은 척박한 땅에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 이유도 없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03)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

**일본이 임시 등대로 활용하기 전에는 쓸모가 없는 땅이었으니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하던 시점부터 독도는
일본이 최초로 발견해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03)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

평화선 설정도 마찬가지다. 평화선은 당시 국제법으로 보장된 영해의 기준인 3해리를 훌쩍 뛰어넘는 60해리에 설정됐으며 국제법상 폭거로 인식되어 미국 또한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평화선을 고수하여 44명의 일본인이 사망하는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니 한국이 독도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03)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주요뉴스

YTN

이슈분석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부, 일본 공사 조치

(04) 독도에 사는 해양생물

쥐치

복어목 쥐치과의 바닷물고기이다. 뼈가 연하여 통째로 썰어서 회로 먹으며, 포를 떠서 말린 것이 쥐포이다.

최대 몸길이 20cm이다. 몸은 타원형에 가까우며 옆으로 매우 납작하고 몸높이는 높다. 주둥이 끝은 뾰족하고, 암초 등에 붙어있는 생물을 뜯어 먹기에 편리한 강한 앞니를 가지고 있다. 몸은 전체적으로 노란색 또는 회갈색이며, 여러 개의 암갈색 점이 흩어져 있다



(04) 독도에 사는 해양생물

청황베도라치

암초에 붙어 사는 소형 베도라치류의 일종이며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남해안, 독도 연안에서 발견된 미기록 어종이다. 원통형 몸은 연분홍빛이며 홍색 반점이 산재한다. 수컷의 머리는 검은색이 짙다. 크기는 7~10cm이다.



(04) 독도에 사는 해양생물

유령멍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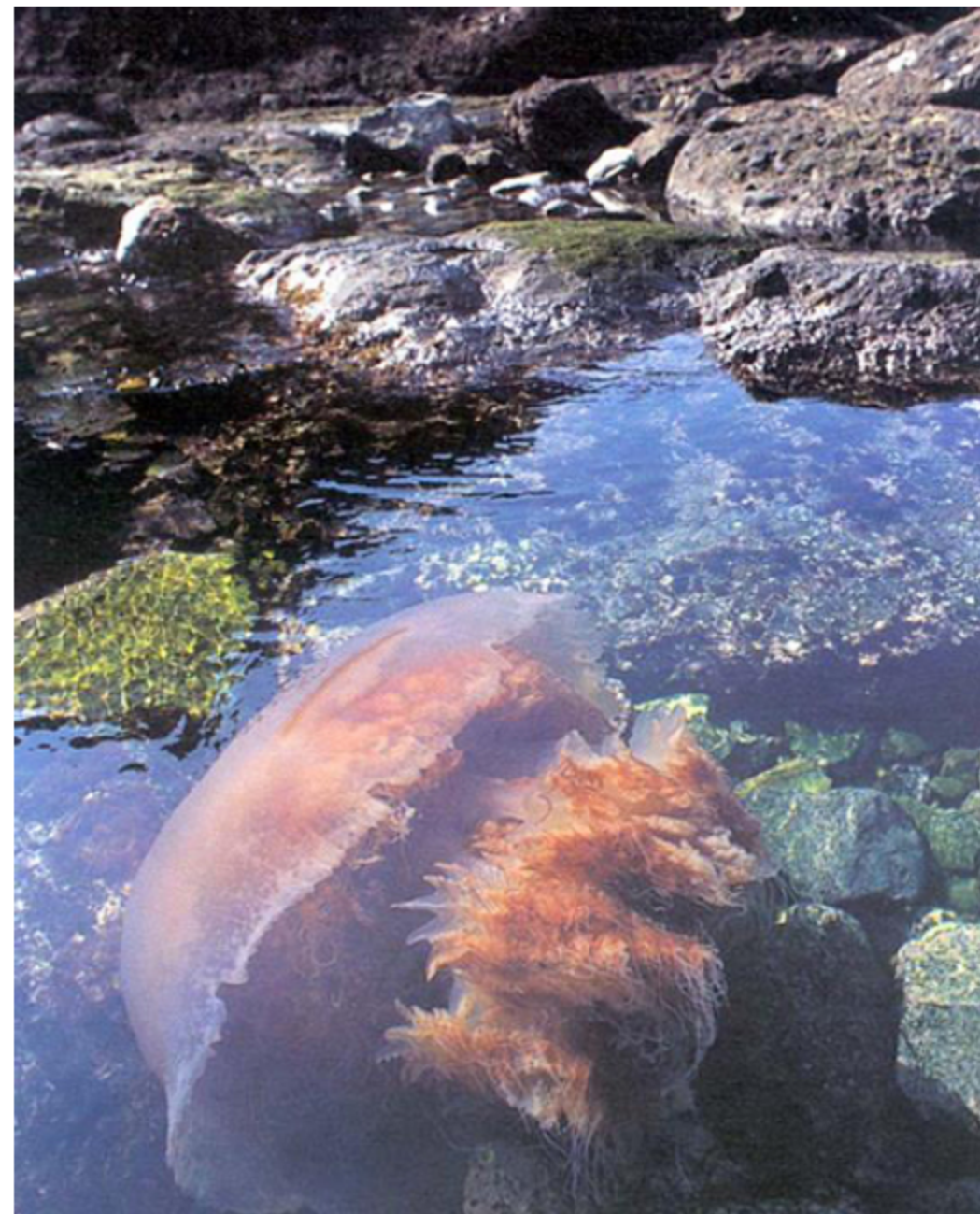
몸길이 약 8cm이다. 몸은 가늘고 길며 몸 밑에 달린 뿌리 모양 돌기로 다른 물체에 붙어 산다. 다른 멍게류와 달리 겉껍질이 무색 투명하고 연한 한천질이어서 내부가 들여다보인다. 입수공은 앞쪽 끝에 있고 출수공은 그보다 약간 뒤쪽에 열려 있다. 입수공과 출수공 끝에는 약 6개의 오렌지색 안점이 있는데, 이 안점으로 명암을 구분한다. 수정관 끝에도 오렌지색 점이 있다. 야간에는 몸이 약간 발광한다.



(04) 독도에 사는 해양생물

해파리

해파리는 대체로 투명하며, 갯 돌레에 많은
촉수를 가지고 있다. 촉수에는 자세포가 있
어 동물분류학상 자포동물문에 속한다. 젤
리 같은 몸을 가져서 영어로는 젤리피시라
부른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해파리를
‘해타라 하고, 속명을 해팔어라고 하였다.
해타는 바다의 모래무지란 뜻이다. ‘타’는
뱀을 뜻하기도 하는데, 길게 늘어진 촉수가
뱀처럼 보여 붙은 이름일 듯하다. 속명 해팔
어는 해파리 발음을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구라게라고 한다.



(04) 독도에 사는 해양생물

등근전복

원시복족목 전복과의 연체동물. 일본이 원산지
지로 수산업상 중요한 패류이다. 맛이 좋고
영양소가 풍부하여 요리 재료나 약재로 많이
사용되며, 껍데기는 공예품으로도 사용된다.

껍데기는 크고 달걀 모양 타원형이며, 어릴 때는
껍데기가 얇으나 자라면서 두껍고 단단해진다.
등쪽 가장자리를 따라 호흡공이라고 불리는 구
멍이 줄지어 있고 껍데기 주둥이 쪽의 구멍
4~5개는 열려 있는데 원뿔형으로 솟아 있으며
성장하면서 새로 생겨나고 묵은 것은 닫힌다. 껍
데기 표면은 방사륜과 물결 무늬가 있다



(04) 독도에 사는 해양생물

큰뱀고동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 조간대에서부터 수심 10m 사이의 조하대 바위 또는 자갈에서 서식한다. 패각 입구 쪽에서 거미줄과 같은 점액질의 그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리는 물속의 유기물이나 플랑크톤을 걸러 먹는 부유물 여과섭식자이다.

크기는 각고 20mm, 각경 50mm, 각구경 13mm 정도이다. 모양은 마치 뱀이 꼬리를 틀고 있는 모양으로 단단히 부착하여 살아간다. 거친 석회질의 관 모양 패각은 표면이 거칠고 1회 이상의 꼬리를 틀고 있다. 패각 표면은 분홍빛을 띠는 갈색이며, 각구 근처로 갈수록 갈색이 짙어진다

